

#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과 가족의 적응성이 자녀의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Parents and Family Adaptability on Child's Adjustment to College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조윤주\*

Dept. of Social Welfare, Sungshin Women's Univ.  
Full time lecturer : Cho, Yoon-Joo

---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parents, family adaptability, and child's adjustment to college, in order to assess general standards and sex difference. It also investigated explaining variables on children's adjustment to college.

The study subjects were 243 college students(male students; 123, female students; 120). The data collected from questionnaire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parents of college students were lower than those of average score. But family adaptabil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of students were higher than those of average score. Secondly,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parents was negatively correlated to adjustment to college, but family adaptability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adjustment to college. Finally, variables that explain child's adjustment to college was cohavitation with parents and family adaptability. In addition to these variables,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parents was a major factor for female students.

---

▲주요어(Key Words) :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parents), 가족 적응성(family adaptability), 자녀의 대학 생활 적응(child's adjustment to college)

### I. 문제 제기

최근 통계청(2010)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81.9%로 이 수치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처럼 대학교육이 보편화되면서 고등교육을 받는 청년층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원활한 대학 적응을 위한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물리적인 증가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자들의 명암이 엇갈리기도 하여 일부

는 대학 생활의 적응에 관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따라서 부적응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초기의 연구들은 대개 학업적 적응에 초점을 맞추었다(Baker & Siryk, 1984; Gerdes & Mallinkrodt, 1994). 그러나 학업상의 문제보다는 개인의 자율성과 개별화 발달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입장이 우세하여, 독자적인 성향의 개인일수록 대학생으로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언하면 분리-개별화를 이룬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 하며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덜 호소한다는 것이다(신지영, 2000; Hoffman, 1984).

---

\* 주저자 · 교신저자 : 조윤주 (E-mail : bijucho@sungshin.ac.kr)

하지만 대학 적응의 예측 변인을 살펴본 대다수의 연구들이 분리-개별화만을 강조하는 경향에 대해 비판을 받게 된다(조화진, 2005). 이는 일찍이 Bloss(1967)가 청년기 자녀의 부모와의 관계 단절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 독립과 자신의 느낌을 발달시킬 때 분리-개별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에서 뒷받침된다. 청년기 발달의 관점에서 부모와 지속적이고 지지적이며 친밀한 관계의 맥락하에서 자율성이 획득될 때 이것이 최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Grotevant & Cooper, 1985). 또한 부모와의 강력한 분리를 추구할 경우 자녀가 더욱 고립되고 사회적 관계를 철회하며 여러 문제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배가됨을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Ryan & Lynch, 1989).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자녀와 부모간 독립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개인의 적응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에는 이견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단지 부모와의 독립성 여부가 자녀의 대학 생활 적응에 긍정적인가 또는 부정적인가에 대한 연구 결과가 혼재되어 있어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부모와의 독립성을 논하는 것이 과연 한국적 정서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개별성보다는 관계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문화적 특성이 존재하는 경우 가족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김동직(1999)의 주장은 부모-자녀 관계 내에서의 양상이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으로는 분리-개별화의 개념이 남녀학생 모두에게 적용가능한 주제인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Kenny와 Donaldson(1991)은 대학 적응에 있어 이를 중요 변인으로 강조하는 것은 발달적 측면에서 남성중심적인 관점이라 비판하면서 여성의 독립성 발달은 타인과의 유대가 강할 때 유지되고 관계의 맥락에서 최고조에 다름을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학문적인 논쟁 외에도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상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즉, 점차 늘어나는 소자녀화 현상은 예전과는 다른 부모-자녀 관계를 초래하는 것인데 이를테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여가 보다 심화되고 있으며 자녀 역시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이다.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녀가 대학생이 된 후에도 부모가 끊임없이 자녀의 학업을 비롯한 여러 생활에 간섭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중앙일보, 2008). 뿐만 아니라 자녀도 부모에게 독립하려고 보다는 이들의 보호하에 안주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헬리콥터 맘'이나 '캥거루족'과 같은 신조어가 이러한 성향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세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부터 본격화되는 자율성과 독립성의 욕구는 대학생 자녀가 성취해야 할 주요 발달 과제이므로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시기는 독자성과 의존성이 상충되는 과도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도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면 부모는 '빈 등우리 시기'를 경험하며 자녀와 심리적 이유의 과업을

달성해야 한다. 결국 대학생 자녀의 사고 영역의 확장 등으로 인해 부모-자녀 관계가 재구성되는 때이다(Windle, 1992). 따라서 자녀의 대학 진학이라는 생활 사건에 대해 가족이 얼마나 융통성있게 적응하는가가 개인의 삶에 결정적일 수 있으므로 가족의 대처와 관련된 변인이 자녀의 대학 생활 적응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대변하기에 적절한 개념으로 가족 체계론에 준한다면 가족의 적응성을 고려할 수 있다.

## II. 선행 연구 고찰

### 1. 대학 생활 적응

일반적으로 적응이란 "개인이 주변 환경과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적응은 유기체와 환경과의 정적인 평형 상태인 동시에 최적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 또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정은희, 1992). 개인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서는 환경과의 수동적인 관계 이상으로 자발적인 행동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자신의 환경에 의지하기보다는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기초로 하여 대학 생활 적응은 "대학생이 대학이라는 환경속에서 학업적 성취나 대인 관계 형성 등과 같은 새로운 경험의 요구에 대처해 나가는 반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 생활의 적응은 다차원의 복잡한 현상일 수 있으므로 다양한 종류의 요구들에 적절한 대처 반응의 수행 정도가 개인의 적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대학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들 중 이에 대한 기초적인 배경 변인으로 주로 언급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은 성, 연령, 경제 수준, 부모와의 동거 여부, 그리고 재수 경험 여부 등이다. 우선 성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학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고된다(박범혁·정영숙, 1997; 신지영, 2000; 최은실, 2001). 다음으로 연령면에서 신지영(2000)의 연구에서는 4학년의 고학년이 가장 적응을 잘 하고 학년이 낮아질수록 적응도가 떨어져 1학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풍족할수록 자녀가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양현정, 2003; 최송미, 1999). 그리고 부모와 따로 살 때 적응을 더 잘 한다는 연구(지선근, 1998)가 있는가 하면, 동거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Baker & Syrik, 1984)도 있다. 한편 재수 경험 여부에 대해 양현정(2003)의 연구에서는 경험자가 비경험자보다 대학 생활에 적응을 잘 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외에 대학 생활 적응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는 학업 성취 수준이 적응의 성공으로 이해되고 직결되었다(Baker & Syrik, 1984; Gerdes & Mallinkrodt,

1994). 그러나 한 개인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적응에 있어 대인 관계나 심리정서적 건강이 주된 영향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대학 생활 적응의 개념을 학업 뿐 아니라 심리, 사회적인 측면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조화진, 2005). 따라서 대학 생활 적응의 영역을 보다 세분화하여 접근할 경우 여러 대인 관계 중 이 때가 부모와의 관계 재정립이 요구되는 주된 시기이므로 이들로부터의 심리적인 독립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2.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

부모와 심리적 독립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Mahler 등(1975)의 분리-개별화 개념으로 설명 가능하다. 일찍이 서양에서는 부모로부터 관계의 끈을 끊고 독립하는 것이 청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제라고 인식되어 왔으며, 이들은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을 '분리-개체화(separation-individuation)'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분리란 "영·유아가 어머니와의 공생 관계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것"이며, 개체화란 "분리의 과정을 통해 영·유아가 한 인간으로서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특히 Blos(1967)는 영·유아기에는 어머니와 신체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위주로 한다면 청년기에는 정신적으로 분리되어 자기 마음속에 존재하는 내면화된 부모와의 끈을 푸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기초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psychological separation)을 정의한다면 "부모와의 의존적인 유대, 결속 관계에서 자율적인 관계로 변모하여 사고와 행동에 개별적인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며(Josselson, 1988), 청소년기에 가족 관계내에서 친밀감 유지와 자아 기능 확립간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Hoffman(1984)은 청소년기의 심리적 독립 중 본 연구의 관심사인 정서적 독립을 "부모로부터 승인, 친밀감, 정서적 지원 등의 과도한 요구로부터 자유로운 정도"로 정의하였다. 한편 Cooper 등(1983)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 관계의 질은 정체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관계가 자녀의 자기 표현과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역할할 때 청소년 자녀는 독립과 친밀감을 동시에 지각한다고 한다.

자녀의 대학 생활 적응과 부모와의 심리적 측면에 관한 국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의 진로 정체감 수준과 부모로부터의 독립 및 애착과의 관계를 알아본 장지선(2004)은 아버지로부터 기능적 독립과 태도적 독립을 이루지 못한 대학생들에게서 진로 정체감 폐쇄 수준이 나타났다. 또한 진로 정체감 폐쇄 수준과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이 부적 상관이 있었던 반면 진로 정체감 성취 수준은 부모와의 애착이 예측 변인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은 부모를 둔 자녀는 진로 결정에 있어 부모의 의견이 많이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조화진(2005)은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애착, 분리-개별화, 대학 생활 적응은 상호간 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정서적 유대안에서의 개별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부모 등 유의미한 타인들로부터 지속적인 격려가 필요함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부모와의 애착을 대학 생활 적응과 관련하여 연구한 박범혁과 정영숙(2007)은 자녀의 자아 정체감이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부모와 모의 애착 정도가 자녀의 정서 적응이나 사회 적응에 미치는 양상이 다름을 밝혀냈다.

특히 청년기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성차가 대한 관심이 높아 남자일 경우 독립을 추구하는 성향이 더 강하다는 연구(정은희, 1992)가 있는가 하면, 독립성에는 성차가 없음을 보여주는 연구(Mattanah et al., 2004)도 있어 이에 대한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 3. 가족의 적응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는 가족의 반응을 고려할 때 가족의 적응성을 생각할 수 있으며 자녀의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간과할 수 없다. Olson(1986)의 순환 모델(Circumplex model)에 따르면 가족 적응성은 "변화에 대한 가족의 개방성으로 상황에 따라 리더쉽, 역할 수행, 규칙 등에서 생기는 변화의 정도"를 뜻한다. 이 때 가족의 적응성은 스트레스와 갈등에 대처하는 가족의 능력을 포함하는데, 정상적인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고 적응하며 가족 구조를 재구조화해야 한다. 결국 이들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은 정서적 유대감의 정도나 가족내 역할, 규칙 등의 영향을 받는 의사소통을 통해 긴장에 적응하며 가족 체계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문헌들로 양은주(1997)의 연구에서는 진로 결정을 잘 못 하는 학생일수록 부모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부모와 자녀간 경계가 약하였다.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과 진로 의사 결정과의 관계에 대한 이소연(2004)의 연구에서는 의존적인 진로 의사 결정 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 수준에 따른 진로 의사 결정 수준의 점수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외에 대학생의 행동 문제를 부모와의 의사소통이나 대학 생활 적응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자녀가 대학 생활 적응을 잘 하였고, 내면화되거나 외현화된 행동 문제는 대학 생활 적응과 부적으로 관계되었다(민하영·이운주·이영미, 2004). 또한 일상적 스트레스는 대학 생활 적응과 부적인 상관이 있었으나 적응 유연성은 정적인 상관 관계를 보였다(최바울, 2007). 미혼 여성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진하와 최연실(2006)은 딸이

아버지와는 심리적인 독립을 하였으나 어머니와는 밀착 정도가 높았음을 발견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종속 변인인 대학 생활 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최근 적응에 관한 연구들 중 개인적, 사회적 자원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자원들은 그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 자원으로는 자아 효능감, 자아 존중감, 진로 정체감 등의 변인들이 주로 언급되었으며, 사회적 자원으로는 가족이 이들에게 주된 지지의 제공자로서 역할한다. 이 중 부모와 관련된 변인으로 부모와의 애착, 분리-개별화, 진로결정시 의사소통 등을 포함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자녀 관계의 양상이 예전과는 다른 세태를 반영할 뿐 아니라 과연 우리나라의 정서상 부모와의 독립성이 자녀에게 긍정적인가를 알아볼 것이다. 또한 자녀의 성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과 가족의 적응성을 독립 변인으로 하여 이것이 자녀의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아래와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 및 가족의 적응성, 자녀의 대학 생활 적응의 일반적인 경향과 성차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 및 가족의 적응성과 자녀의 대학 생활 적응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대학생 자녀의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에 소재한 A대학교에 재학중인 243명(남; 123명, 여; 120명)으로, 대학 생활의 적응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대학 입학 후 1년이 경과한 1학년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주요 변인에 대해 대학생의 성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알아보려고 동수로 표집하였다.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123명, 120명으로 반수에 근접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남학생은 20.6세, 여학생은 20.3세였다. 출생 순위에 대해서는 남학생의 경우 '장남'이 61.0%, '차남 이하'는 32.5%를 차지하였고 여학생은 '장녀'와 '차녀 이하'가 45.8%로 같았다. 남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의 주관적인 경제 상태는 '좋은 편이다'가 각 61.8%, 63.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어려운 편이다'가 남학생 30.9%, 여학생 33.3%였다.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은 전체 80%에 육박하였는데, 이 중 남학생 집단은 73.2%였고, 여학생 집단은 88.3%로 나타났다. 또한 재수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재수한 비율과 안 한 비율이 49.4%로 동일하였고 재수한 비율면에서 여학생이 다소 높았다.

#### 2. 측정 도구

##### 1) 대학 생활 적응

자녀의 대학 생활 적응 정도는 Baker와 Siryk(1984)의 'Stu-

<표 1>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 인	남(n=123)		여(n=120)		전체(N=243)	
		(%)		(%)		(%)
대학생 자녀 연령(SD)		20.59세(2.33)		20.31세(2.04)		20.45세(2.28)
출생 순위	장남/장녀	75(61.0)		55(45.8)		130(53.5)
	차남 이하/차녀 이하	40(32.5)		55(45.8)		95(39.1)
	외동아들/외동딸	8( 6.5)		10( 8.4)		18( 7.4)
주관적 경제 상태	매우 어렵다	5( 4.1)		-		5( 2.1)
	어려운 편이다	38(30.9)		40(33.3)		78(32.1)
	좋은 편이다	76(61.8)		76(63.4)		152(62.6)
	매우 좋은 편이다	-		1( .8)		1( .4)
	무응답	4( 3.2)		3( 2.5)		7( 2.8)
부모 동거 여부	동 거	90(73.2)		106(88.3)		196(80.7)
	비동거	33(26.8)		14(11.7)		47(19.3)
재수 여부	재수함	58(47.2)		62(51.7)		120(49.4)
	재수 안 함	62(50.4)		58(48.3)		120(49.4)
	무응답	3( 2.4)		-		3( 1.2)

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26문항을 사용하였고, 이는 개인 정서 적응에 관한 15문항과 사회 적응에 관한 11문항으로 세분화된다. 개인 정서 적응은 "대학생이 일반적으로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 및 신체화 장애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며, 사회 적응은 "대학생이 대학내에서 대인 관계나 과외 활동과 같은 생활에 적응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래의 척도는 각 문항이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예비조사 결과 응답상의 중앙 집중 경향을 방지하고자 4점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이며 영역별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 정서 적응과 사회 적응이 원활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  $\alpha$ 는 .697이었다.

### 2)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

자녀가 대학 입학 후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Hoffman(1984)의 '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 중 정서적인 독립 영역의 17문항을 이용하였다. 이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과도한 인정이나 사랑, 지지받고자 하는 욕구에 얽매이지 않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17점부터 68점까지이다. 합한 점수가 낮을수록 부모에게 심리적으로 독립적임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역채점하여 분석하였고 측정된 Cronbach  $\alpha$ 는 .880이었다.

### 3) 가족의 적응성

가족의 적응성은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III(Olson, Portner, & Lavee, 1985)' 척도 중 적응성 영역에 해당하는 10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는데, 문항의 내용은 '우리 집은 자녀들도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등이다. 이에 대한 문항도 4점 척도로 구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 중 응답하게 하였다. 합산 점수가 적을수록 가족의 적응성이 '경직된 것'이며 높을수록 '혼동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신뢰도 계수는 .825였다.

### 4) 사회인구학적 변인

분석을 위한 배경 변인으로 출생 순위는 '장남 또는 장녀', '차남 이하 또는 차녀 이하', '외동아들 또는 외동딸' 중 선택하게 하였다. 주관적인 경제 상태는 '매우 어렵다(1점)'부터 '매우 좋은 편이다(4점)'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현재 부모와의 동거 여부는 '동거하는 경우'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중 택일하게 하였고, 대학 진학시 재수 경험에 대해서도 '재수함', '재수 안 함'으로 구분하여 선택하게 하였다. 이들 변인들은 회귀분석에 투입시 더미 변환하여 처리하였다.

### 3. 자료 수집 및 분석

응답자의 문항 이해와 응답상의 어려움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유의표집한 대학생 5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문항에 대해 별 다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에서 25분 정도였다. 본조사는 1학년이 끝나가는 시점에 즈음하여 2008년 12월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자가 해당 대학을 방문하여 대학생들에게 설명한 후 질문지로 조사하였는데, 연구자가 직접 방문한 경우는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으며, 연구 보조자를 통한 경우는 일주일 뒤에 회수하였다. 배포한 총 250부의 질문지 중 248부가 수거되어 이 중 응답 내용이 부실한 5부를 제외한 243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수집한 자료의 분석은 우선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 편차,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과 가족의 적응성, 자녀의 대학 생활 적응이 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는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성 및 가족의 적응성과 자녀의 대학 생활 적응간 관계 파악은 Pearson의 직률 상관 계수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이들의 대학 생활 적응을 설명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상의 자료 분석은 SPSS WIN(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1.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성에 따른 차이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 통계와  $t$  검증을 하였는데 결과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 대상자들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심리적인 독립 정도는 전체 점수 31.9점으로 남학생은 평균 33.0점, 여학생은 30.8점이었으며 남학생이 보다 부모에게서 독립적이었다. 이는 남자일 경우 독립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 정은희(1992)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평균 점수에 해당되는 42.5점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남녀학생 모두 부모에 대한 의존성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족의 적응성 정도는 전체 29.6점이었으며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29.5점, 29.7점으로 여학생이 약간 높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중간 범위에 해당되는 점수인 25점을 고려한다면 가족의 적응성 수준은 높은 편에 해당된다. 가족의 적응성을 '경직된', '다소 융통성있는', '융통성있는', '매우 융통성있는', 그리고 '혼동된'의 5가

&lt;표 2&gt; 주요 변인의 평균과 표준 편차 및 성차

변 인	점수 평균(점)	남(n=123) M(SD)	여(n=120) M(SD)	전체(N=243) M(SD)	t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	1.88	32.98(11.54)	30.78(7.25)	31.88(9.75)	1.778+
가족의 적응성	2.96	29.50( 4.88)	29.65(4.19)	29.57(4.54)	-.276
자녀의 대학 생활 적응	2.54	67.32( 8.70)	64.88(7.44)	66.10(7.98)	2.93*

\*p&lt;.10, \*\*p&lt;.05

&lt;표 3&gt; 심리적 독립 및 적응성과 대학 생활 적응 관계

변 인	자녀의 대학 생활 적응		
	남(n=123) r	여(n=120) r	전체(N=243) r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	-.073	-.247**	-.115+
가족의 적응성	.525***	.445***	.482***

\*p&lt;.10, \*\*p&lt;.01, \*\*\*p&lt;.001

지 수준으로 분류할 때(Olson, DeFrain, & Olson, 1998), 본 연구 대상자 가족의 적응성은 남녀 모두 '융통성있는'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해석된다.

끝으로 자녀의 대학 생활 적응은 남학생 67.3점, 여학생 64.9점으로 전체 점수는 66.1점이었다. 평균 점수인 65점을 기준으로 하면 남학생이 이에 약간 상회하였고 여학생은 다소 못 미친 수치를 보였으며, 남학생이 대학 생활에 더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남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 점수가 여학생보다 높았던 선행 연구 결과(박법혁·정영숙, 1997; 최은실, 2001)와 일치하는 것이다.

## 2. 심리적 독립 및 적응성과 대학 생활 적응 관계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 정도 및 가족의 적응 정도와 자녀의 대학 생활 적응 정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Pearson의 적률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고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 남학생은 부모와의 심리적인 독립과 자신의 대학 생활 적응이  $r=-.073$ 으로 부적 상관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여학생의 경우는  $r=-.247^{**}$ 로 부적 관계였다. 즉, 부모에게서 독립적일수록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족의 적응성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r=.525^{***}$ , 여학생은  $r=.445^{***}$ 로, 두 집단 모두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다시 말하면 남녀학생 모두 가족의 적응성이 높을수록, 이들이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3. 자녀의 대학 생활 적응을 설명하는 변인

자녀의 대학 생활 적응을 설명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려고 대학 생활 적응을 개인 정서 적응과 사회 적

응으로 세분화하여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독립 변인간 다중공선성을 점검하였는데, 독립 변인간 상관 계수는 그다지 높지 않아 분석에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Durbin-Watson 계수는 남자 대학생 집단 1.931, 1.594, 여자 대학생 집단 1.991, 1.976으로 2에 근접하였다. 또한 Eigen 값은 집단별로 모두 15이하여서 회귀 분석에 적합한 모형이었다. 집단별로 1단계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2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독립 변인인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과 가족의 적응성을 투입하였다.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과는 <표 4>에, 여학생의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회귀 분석 결과, 남자 대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으로 1단계에 투입한 변인들 중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없었으나, 2단계에서 개인 정서 적응은 가족의 적응성( $\beta=.455, p<.001$ )이, 사회 적응에 있어 부모 동거 여부( $\beta=.324, p<.001$ )와 가족의 적응성( $\beta=.319, p<.001$ )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가족의 적응성이 높을수록, 남학생이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였다. 그리고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개인 정서 적응이 21%( $F=4.259^{***}$ ), 사회 적응이 12%였다( $F=4.368^{***}$ ).

여자 대학생의 분석 결과, 1단계에서 사회 적응을 설명하는 변인은 부모 동거 여부( $\beta=.251, p<.05$ )로 부모와 같이 살 때 사회 적응을 잘 하였으며, 설명력은 개인 정서 적응 2%( $F=.335$ ), 사회 적응 7%( $F=1.628$ )였다. 2단계 사회 적응에서도 부모 동거 여부( $\beta=.202, p<.05$ )는 여전히 유의한 변인으로 남아 있었으며,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 $\beta=-.210, p<.05$ )은 부적 영향을, 가족의 적응성( $\beta=.351, p<.001$ )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 정서 적응에서 가족의 적응성( $\beta=.359, p<.001$ )도 유의한 설명 변인이었다. 다시 말하면

<표 4> 남자 대학생의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 결과

N=122

변 인	1단계	2단계
	$\beta$ (개인 정서/사회)	$\beta$ (개인 정서/사회)
대학생 자녀 연령	.068/.028	.035/.007
출생 순위	-.032/-.134	.040/-.066
주관적 경제 상태	-.026/.042	-.075/-.012
부모 동거 여부	.034/.254	.081/.324***
재수 여부	-.062/.064	-.048/-.087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		-.003/-.137
가족의 적응성		.455***/.319***
$\Delta R^2$	.012/.093	.195/.093
$R^2$	.012/.093	.207/.118
F	.287/2.382*	4.259***/4.368***

\*p<.05, \*\*\*p<.001

<표 5> 여자 대학생의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 결과

N=120

변 인	1단계	2단계
	$\beta$ (개인 정서/사회)	$\beta$ (개인 정서/사회)
대학생 자녀 연령	-.037/-.001	-.059/-.043
출생 순위	.002/-.043	.001/-.053
주관적 경제 상태	-.100/-.012	-.100/-.031
부모 동거 여부	.059/.251*	.020/.202*
재수 여부	-.014/-.068	.026/-.134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		.003/-.210*
가족의 적응성		.359***/.351***
$\Delta R^2$	.015/.067	.124/.206
$R^2$	.015/.067	.139/.272
F	.335/1.628	2.537*/5.984***

\*p<.05, \*\*\*p<.001

부모와 같이 살 경우, 부모와의 심리적인 독립성이 적을수록, 가족의 적응성이 높을수록, 여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이 원만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여자 대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설명력은 개인 정서 적응 14%( $F=2.537^*$ ), 사회 적응 27%였다( $F=5.984^{***}$ ).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녀의 대학 진학 시점이 부모와 심리적 이유를 달성하기에 적절한 시기이나 부모-자녀간 밀착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현 사회상을 반영하여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 정도와 가족의 적응 정도가 자녀의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에게서 심리적으로 독립적이었는데 이는 성 역할 사회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Chodorow(1973)는 '성-역할 사회화'라 하여 남성에게는 자율성, 도구적 행동을 강조하며,

여성에게는 대인 관계에 있어서 민감성, 양육적 행동 등을 강조하는 사회화 과정이 아동기를 거쳐 내면화되며, 문화적 규범에 의해 계속적으로 강화된다고 하였다(조윤주, 2002, 재인용).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성장해 온 경우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에 비해 부모와 독자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Kenny와 Donaldson(1991)의 지적과 같이 사회화 과정이 상이한 남녀에게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성차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이 변인에 대한 연구 계획시 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심도있는 고민이 요구된다.

이처럼 남녀학생의 독립 정도에 성차가 나타나는 것은 전반적으로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니었다. 이는 자녀가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부모와의 분리-개별화 과업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Mahler와 동료들(1975)은 분리-개별화의 개념에서 분리와 연결을 높고, 낮음으로 구분하여 친밀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독립된 존재인 '개체화형(분리↑- 연결↑)', 부모와 친밀하거나 신뢰로운 관계가 아니며 독립된 존재인 '가독립형(분리↑- 연결↓)', 독립된 존재는 아니나 부모와 친밀하고 신뢰로운 관계만 유지하는 '의존형(분리↓- 연결↑)', 독립도 연결도 아닌 '애매형(분리↓- 연결↓)'으로 구분한 바 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이 중에서 세 번째 유형인 '의존형'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NEET족'이나 '코쿤족'과 같이 대학 졸업 후에도 마땅히 하는 일 없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여 사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자녀가 늘어나고 있으며, 자녀의 양육 책임 기한을 '평생토록'이라고 응답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의 조사 결과에서처럼 자녀의 독립 시기가 점차 늦어지는 현상이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더욱이 10대 후반 내지 20대 초반의 대학 1학년생은 아직까지 성숙한 적응 상태를 이루었다고 단언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고가 보다 팽배할 수 있으며, 소자녀화의 추세에 따라 이들이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은 하나의 사회적 조류라고도 볼 수 있다.

다음 가족의 적응성은 남녀 모두 평균 점수 이상이어서 '유통성있는'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남녀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은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며 가족 구성원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안정과 변화간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가족은 안정을 제공해 주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개방적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가족 구성원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자녀는 대학 진학을 통해 여러 부분에서 환경의 변화 요구가 나타나므로 이는 유스트레스인 동시에 디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자의 가족이 외부 자극에 대해 유통성있게 대처하는 가족의 적응 능력은 자녀가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극복하는데 하나의 자원으로 역할하고 이 과정에서 아들이든 딸이든 관계없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학 생활 적응은 남학생이 더 원활하여 성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적응도가 떨어졌던 박범혁과 정영숙(1997)의 연구, 최은실(2001)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는 외부 환경의 요구에 대한 여학생의 대처 반응이 남학생에 비해 다소 취약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남녀 대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을 설명하는 변인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부모 동거 여부와 가족의 적응성이었으며 특히 여학생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도 영향을 미쳤다. 부모와의 동거 여부 경우 부모와 동거시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개인적, 정서적 적응에서 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던 선행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였다(양현정, 2003; Baker & Syrik,

1984).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정체성이 재정립되고 재해석되어야 하는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 그들은 청소년에서 성인으로의 전환기에서 친구나 일부는 가족과 떨어져 진학을 하게 되는 경험을 하며, 이른바 '신입생 신화'가 이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입생 신화란 "입학 전 자신의 능력과 대학에 대한 신화적 기대가 입학 후 실제 대학 생활에서 지각하는 자신의 적응 능력과 대학에 대한 만족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차이가 크면 클수록 입학 후 실제 대학 생활 적응 점수는 낮게 나타난다(Baker et al., 1985).

또한 이와 같은 새로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은 처음으로 익명성을 경험하기도 한다. 익명성을 경험하는 것은 대학생이 된 학생들이 흔히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인데 특히 대학 생활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입학하는 학생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다(Boyer, 1987). 그리고 이러한 비현실적인 기대는 환경 적응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자들이 만약 신입생 신화나 익명성 등 자신의 존재감을 대학 생활내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이전까지 자신에게 무조건적이고 무한정의 지지원인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자아 존중감 유지와 고양에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적응을 잘 하는데 기초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같이 살 경우 부모로부터 제공받는 지원의 빈도가 물리적인 근접성으로 인해 보다 원활할 수 있으며, 이전에 부모와 동거하며 받는 안내와 지도에 익숙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응해야 하는 환경이 과거와 유사할수록 개인이 적응을 잘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대학 진학을 위해 부모의 곁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것보다 부모와 같이 예전과 동일한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생활하여 거주지의 변화가 없을 경우 적응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가족의 적응성이 남녀 대학생 모두 대학 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적응 유연성이 대학 생활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최바울(2007)의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순환 모델에 의하면 가족의 기능 수행은 가족 구성원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며 이들은 의사소통이나 가족내 역할, 규칙, 문제 해결 방법 등의 유통성 아래 항상성을 유지하게 된다. 부모-자녀간에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특정 가족 구성원에게 권력과 권한이 집중되기보다 공평할 때, 상황에 적합하게 가족 규칙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가족의 적응성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이 생활하면서 상황적으로 처하게 되는 긴장이나 위기에 대한 저항력이 내적으로 갖추어지게 되어 개인의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며, 가족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여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될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숙달된 유연한 생활 방식이 대학 생활 적응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



히 상기한 변인들이 주로 사회 적응 부분에서만 유의했던 것은 사회 적응이 측정하는 내용이 대인 관계 위주인데, 부모와 형성해 온 대인 관계의 기술이나 문제 해결 방법이 가족 이외의 인간 관계에도 확장, 적용되어 동일한 양상을 나타낸 것으로 예상된다.

흥미로운 결과는 여학생은 부모와 심리적인 독립 정도가 적을수록, 환연하면 심리적으로 부모에게 의존적일 경우 대학 생활에 적응을 잘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맹영임(2001)의 연구에서도 가족의 적응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정서적 독립 수준은 낮았던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 관계의 질은 자기 표현과 상호 교환이 가능할 때 청소년 자녀는 독립감과 친밀감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Cooper et al., 1983). 가족 발달 이론에서는 청소년의 성공적인 독립은 궁극적으로 부모와의 친밀감 경험을 깊이있게 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신지영, 2000), 가족 관계에서 친밀감과 거리감을 발달 단계별로 적절히 변화시키는 것이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발달 과업을 촉진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자들은 부모와의 친밀감이 거리감에 비해 아직 우세한 단계여서 부모에게 의존적인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보다는 그 반대로 작용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이진하와 최연실(2006)의 연구에서는 미혼 여성이 아버지와는 심리적 독립을 하였으나 어머니와는 밀착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딸이 아들보다 부모와 관련되어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했던 '성 역할 사회화'와 동일한 관점으로 해석 가능하며, 여성이 부모에게 의존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여학생에게는 적응에 보다 긍정적인 것일 수 있다. 이처럼 여학생은 부모와의 심리적 유대가 대인 관계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이 때 사회적 관계에서도 원만한 적응을 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하게 한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지금까지는 자녀와 부모와의 독립적인 관계가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융통성있는 대처가 요구된다. 더욱이 가족주의 전통이 강한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부모로부터 독립만을 강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또한 Josselsson(1988)은 청년기의 개별화 과정에서 반드시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를 희생시켜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관계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대학생 자녀가 부모의 안전하고 온정적인 관계에서 분리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고자 완전히 독립된 개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립성 형성을 위해 부모가 자녀에 대한 통제를 줄이고 자녀의 의사 결정을 존중해 주며 자녀에게 부모의 조언이나 충고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녀가 독자적으로 자신의 삶을 운영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자녀가 자신감을 갖

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동시에 자녀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를 위해 부모는 자녀에게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자녀를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며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심적인 위로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평생동안 성공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상자가 수도권 대학에 한정되어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부모와의 관계를 측정하기는 하였으나 부와 모를 구분하여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해서 자료의 해석과 논의에 아쉬웠던 점을 향후 연구에서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 연구는 정서적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주로 연구하였으나 기능이나 태도 등의 보다 세분화된 영역으로 확대하여 자료를 수집한다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적 특성과 성차를 고려하여 반영한 척도의 개발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최근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으며, 부모에 대한 심리적인 의존이 대학 생활 적응에 유해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신선한 결과로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김동직(1999). 문화적 맥락에서 본 개별성-관계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맹영임(2001). 가족 체계와 심리적 독립 수준 및 진로미결정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하영 · 이윤주 · 이영미(2004). 대학생의 내면화 및 외현화된 행동 문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대학 생활 적응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17-27.
- 박범혁 · 정영숙(2007).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부모와의 애착 및 대학 생활 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3), 45-57.
- 신지영(2000). 부모와의 갈등적 독립 및 가족 응집력과 대학 생활 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은주(1997). 진로 미결정 대학생들의 진로상담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가족 체계적 관점에서의 고찰. 서강대 학생생활연구소 편. **인간의 이해**, 18.
- 양현정(2003).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아 존중감의 상호작용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연(2004).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과 진로 의사 결정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하 · 최연실(2006). 미혼 여성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 에 미치는 가족 체계의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4), 75-92.
- 장지선(2004). 대학생의 진로 정체감과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 및 애착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희(1992).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대학 생활 적응과의 상관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윤주(2002). 대학생의 부모와의 애착·갈등 및 부양 의무감과 부모 부양 의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화진(2005). 부모와의 애착 및 분리-개별화가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중앙일보(2008. 5. 24.). 헬리콥터 부모 급증.
- 지선근(1998). 부모의 지지 및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바울(2007). 대학생의 적응 유연성 신념이 대학 생활의 적응과 스트레스 조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승미(1999). 한·중 대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과 정신 건강에 대한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실(2001). 애착과 일반적 자기 효능감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10). 2009 한국의 사회지표. 대전: 통계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 2006 전국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보건사회연구원.
- Baker, R. W., McNeil, O. V., & Siryk, B.(1985). Expectation and reality in freshman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1), 94-103.
- Baker, R. W. & Syrik, B.(1984). Measuring academic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189.
- Blos, P.(1967). The second individuation process of adolescence. In P. Blos, *The Adolescent passage: Developmental issues*. N.Y.: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Boyer, E. L.(1987). *College: The undergraduate experience in America*. N.Y.: Harper & Row Press.
- Cooper, C. R., Grotevant, H. D., & Condon, S. M.(1983). Individuality and connectedness in the family as context for adolescent identity formation and role-taking skill. In H. D. Grotevant & C. R. Cooper(Eds.). *Adolescent development in the family: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San Francisco: Jossey Bas.
- Gerdes, H. & Mallinkrodt, B.(1994). Emotional, social, and academic adjustment to college students: A longitudinal study of reten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58, 415-428.
- Grotevant, H. D. & Cooper, C. R.(1985). Patterns of interaction in family relationships and the development of identity exploration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6, 415-428.
- Hoffman, J. A.(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0-178.
- Josselson, R.(1988). *The embossed self: Self, ego, an identity: Intergrative approach*. N.Y.: Springer.
- Kenny, M. E. & Donaldson, G. A.(1991). Contribution of parental attachment and family structure to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4), 479-486.
- Mahler, M. S., Pine, F., & Bergman, A.(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human infant*. N.Y.: Basic Books.
- Mattanah, J. F., Hancock, G. R., & Brand, B. L.(2004). Parental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of Mediation Effec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2), 213-225.
- Olson, D. H.(1986). Validation studies and FACES III. *Family Process*, 25, 337-351.
- Olson, D. H., DeFrain, J., & Olson, A. K.(1998). *Building Relationships*. Minneapolis: Life Innovation Inc.
- Olson, D. H., Portner, J., & Lavee, Y.(1985). *FACES-III: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St. Paul.
- Ryan, R. M. & Lynch, J. H.(1989). Emotional autonomy versus detachment: Revising the vicissitudes of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Child Development*, 60, 340-356.
- Windle, M.(1992). A longitudinal study of stress buffering for adolescent problem behavior. *Development Psychology*, 28, 522-530.

□ 접수일 : 2009년 11월 20일

□ 심사일 : 2010년 01월 30일

□ 심사완료일 : 2010년 03월 30일